

김오진 제1차관, “특별법 연내 통과 위해 정책 역량 집중”

- 10월 31일 「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」… 추진상황 점검

-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31일(화) 오후 서울에서 「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 - 이번 회의에서는 「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」의 중간 보고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.
 - 회의에 참석한 민관합동 TF 위원들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발의한 「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」이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,
 - 국토교통부가 만드는 「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」과 1기 신도시 「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」이 '24년 중 병행 수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정부·지자체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.
- 민관합동 TF 공동위원장인 김 차관은 “그동안 특별법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민관합동 TF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면서,
 - “1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 첫 관문인 「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」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”는 다짐을 밝혔다.
- 아울러 김 차관은 “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신도시 총괄기획가(MP)가 중심이 되어 민생 현장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”면서,
 - “정부는 주민·지자체, 공공기관 등 모든 참여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이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2023. 10. 31.

국토교통부 대변인